

## “함께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 6인 6색 기자들의 극한 집필기

### 연합뉴스TV

장윤희 기자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강원도 북카페에서 독자들과 만났다. 조롱 샅샅한 날씨를 잊게 하는 열띤 북콘서트였다.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 선생님들이 먼 길을 찾아와 날 카로운 질문을 하셨다. 사진 왼쪽부터 조병욱·이진중·김용출·이현미 기자다. 박영준 기자와 나는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했다. <이상은 독자 제공>

“소속 매체, 출입처, 직급, 나이, 거주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기자 6명이 논픽션 집필을 위해 뭉쳤다. 지금까지 이런 모임은 없었다. 이것은 모험인가, 무모함인가.”

논픽션에 관심 있는 기자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2년 가까이 책을 같이 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7년 8월 결성된 모임 ‘실록(實錄)’은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2월 <역사 논픽션 3·1운동>이란 책을 펴냈다. 단행본 분량 646페이지, 깨알 같은 참고문헌만 40페이지인 허구 없이 팩트로만 꽉 찬 논픽션이다. 일제시대 신문과 각종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술술 읽히게 엮어냈다. 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추천도서로 선정되고, 모임은 미디어 관련 매체에 인물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책이 나온 후 동료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만들어진 모임이냐”, “어떤 방식으로 함께 책 쓰는 일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모임이 중간에 ‘파투(!)’ 없이 지속됐느냐” 등이었다. 업무 외 활동과 책 쓰기에 관심 있는 기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훌륭한 선배들을 만나 운 좋게 많이 물어갔다”고 답하곤 했다. 진심 사실이다. 다만 질문하는 분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다.

책도 책이거니와 이 모임이 언론계에 서 보기 드물게 소속 매체와 출입처 테두리를 허물어냈다는 점, 단순 친목도모가 아닌 특정 목적의식을 갖고 결성됐다는 점, 멤버 6명 중 한 명도 낙오자 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과정을 기자 세계에 공유하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 발매한 아이템을 당일 마감하기도 버거운 기자 생활에서 여러 사람과 가윗일을 해내는 일은 정말 녹록하지 않다. 난관을 넘고 나면 어려웠던 만큼 성취감도 매우 큰데, 이러한 사례가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픽션 모임 ‘실록’은 멤버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기자의 세상보기 2019’ 투고는 내가 맡게 되었다.

### # 2016년 여름

이 모임은 <세계일보> 김용출 정치부장께서 내게 ‘논픽션 동아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동아리의 태동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뉴스스> 산업부 기자였고, 김용출 선생은 <세계일보> 산업부 차장이었다. 출입처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뵈게 되었는데, 까마득한 주니어 기자가 타사 고참 선생과 교류할 계기는 거의 없었다.



논픽션 모임은 2019년 3월 첫째 주 기자협회보 종합 2면(1)에 실리는 영예도 안았다. 취재원 입장이 되어보는 독특한 경험이었다. 왼쪽부터 이천중·김용출·장윤희·조병욱 기자다. 토요일 저녁에 인터뷰가 열렸는데 이현미 기자와 박영준 기사는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기자협회 김달아 기자>

우연히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마 대다수의 기자가 그러하듯이, 나도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한번쯤 책을 써보고 싶었다. 틈틈이 출판계획서를 써서 출판사의 문을 이곳저곳 두드리고 있었다. IT출입 경험을 살린 모바일 트렌드에 관한 주제였다. 긍정적인 출판사도 있었지만, ‘신인 저자’란 이유로 거절하는 곳도 있었다. 김 선생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다룬 <독일 아리랑> 등을 집필한 ‘저자’였다. 책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김 선생은 “책을 쓰는 것은 더 많이 읽는 것이다, 저술을 위해 취재하고 연구하며 쓰는 것 자체를 즐기세요”라고 힘을 팍팍 실어주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

하면 “기사 쓰기만으로도 바쁜데 가능하겠어?”라며 가우뚱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나도 현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장기자, 당신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 보는 타사 후배에게 덕담으로 건넨 말씀일 수 있겠으나 큰 용기를 받았다. 얼마 안 되어 나는 출판사를 계약해 첫 책을 낼 수 있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응원해주는 유경험자가 가까이 있다면 꿈에 보다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누군가 책 쓰는 일로 고민하면 이렇게 조언한다.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 2017년 여름

그사이 나는 정치부로 부서가 바뀌었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해 각종 인사발표와 대북 이슈로 정신이 없을 때였다. 태양이 펄펄 끓듯이 무더웠던 8월 1일, 김 선생에게 오랜만에 카카오톡이 왔다. 잠깐 통화가 가능하느냐는 내용이었다. 한동안 서로 소식이 뜸했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열린 전화를 드렸다.

“논픽션 동아리를 함께해보자”. 김 선

배의 첫마디였다. “네? 노, 논픽션 동아리요?”

정체불명의 물체가 눈앞을 지나가고, 알 수 없는 뽀족함이 옆구리를 푹 찌르는 기분이었다. ‘동아리’란 말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었는데, 논픽션 동아리라... 김 선생은 자신과 함께 논픽션 동아리 공동 발기인이 되자고 제안하셨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대에서 기자의 팩트 찾는 능력, 취재력과 문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장르가 논픽션이란 이유에서였다. 타사 후배에게 논픽션 동아리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한 김 선생 전화에 매우 얼떨떨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자란 직업이 재밌고 박진감 넘칠 때가 있지만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다음 날이 되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기분에 허탈 때가 많았다. 기사와 달리 휘발성이 적은 논픽션은 묵직하고 통시적인 시대의 기록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뜻을 모으기로 하자, 김 선생은 동아리 모집 글을 함께 만들어 각자의 페이스북에 올리자고 하셨다. 김 선생이 모집 글 초안을 잡으셨다. 다음은 2017년 8월 8일 김 선생과 함께 올린 논픽션 동아리 회원 모집 글이다.

### 〈논픽션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알 듯 말 듯한 또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사람, 조직, 사건 등)에 대한 놀라운 사실과 총체적인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책,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스토리, 소설 같은 빠른 전개와 놀라운 묘사력,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나 문장까지 담긴.

논픽션, 픽션이 아닌 글(과 책). 살아 펄펄 뛰는 글을 쓰고 싶고, 가능하면 이것을 책으로도 펴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아마 많은 이들의 꿈이거나 소망일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이들과 함께 진실을, 경험을, 선의를 공유하고 싶어서이겠지요. 근저에는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논픽션의 많은 미덕을 먼저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며 이것을 책으로 출간해 소통하는 논픽션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논픽션 그룹이라고 하니 조금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논픽션을 함께 쓰는 동아리 정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논픽션 동아리에 대한 대략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의 논픽션 그룹은 기존에 책이

나 자료를 읽거나 토론하는 것이 중심인 수많은 모임과 달리 함께 논픽션을 쓰고 고쳐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즉 읽거나 토론이 아닌 쓰기, 특히 출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공부 중심의 기존 작가나 교수, 학생이 회원 중심이 아닌, 실제 논픽션을 쓰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논픽션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또 이미 책을 냈지만 논픽션 저자나 본격적인 논픽션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정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겠지요.

모임의 운영도 논픽션을 쓰고 고치며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진 것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월 1회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각자 쓴 것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고치고, 그 사이에는 각자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흘러 초고를 다 쓴 뒤에는 월 1회 페이스가 아닌, 좀 더 타이트하게 고쳐쓰기와 퇴고, 출판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겠지요. 기본 2, 3년을 주기로 최소 각자 책을 1, 2권 정도를 내면 어

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략의 논픽션 동아리 상입니다. 물론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 지금의 구상했던 것이 실제 운용하다 보면 바뀌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동아리의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차차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도 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격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멋진 제2의 인생의 희망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뛰십시오. 뜻이 있다면, 꿈이 있고 절절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을 뿐입니다. 함께 꾸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동아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 중 한 곳으로 연락처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견례는 9월 1일 저녁(가안)쯤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17. 8. 8. 서울에서  
김용출(독일아리랑) [비선권력] 등 저자  
장윤희(커넥트 에브리씽) 저자 올림

### # 2017년 가을

장문의 모집 글을 올리자마자 페이스 북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멋진 모임이네요’, ‘관심 있습니다’, ‘윤희 파이팅!’ 등의 댓글이었다. 첫출발이 순조롭다고 느꼈다.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란 고민이 순간 들었지만 엄청난 기우였다. 응원 댓글은 응원 댓글이었을 뿐, 정작 내 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 달이 다 되어갔지만 반응은 조용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몇몇 지인에게 동아리 함께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도 해봤지만 ‘취지는 좋지만 직장 다니면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는 답변을 무수히 들었다.

김용출 선배에게 ‘선배 메일로는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느낌상 사정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았다. 그렇게 모임이 흐지부지되나 싶었으나 김 선배가 움직이셨는지 <세계일보>에서 4명이 합류했다. 세종시를 출입하는 이천중 사회부 차장, 국회 출입 박영준 정치부 기자, 보건복지부 출입 이현미 사회부 기자, 영국 연수 중이었던 조병욱 기자 등이었다. 모두 단독 저서 또는 공저를 낸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하여 나이, 출입처, 직급, 매체가 다른 기자 6명이 논픽션 모임을 결성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 이름은 '논픽션 그룹 실록'으로 지었다. 주제는 '3·1운동 100년'으로, 100주년인 2019년 초 출간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모임 이름으로 '논픽션 구락부'도 유력했는데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본떠 '김용출과 아이들'을 제안했고 많은 멤버들이 진지하게 추천했지만 김 선배 본인이 고사하시며 결국 실록이 낙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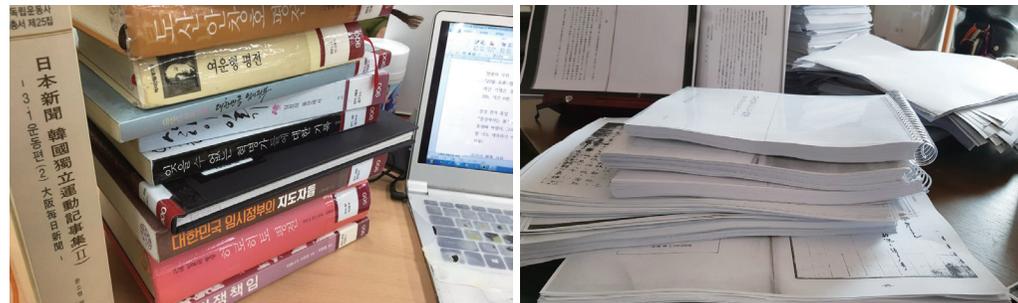
주제를 3·1운동으로 정하고 시기별로 취재할 분량을 나눴다. 매달 한 차례 만나 토론하면서 자료를 점검하고 보완했다. 집필이 이뤄진 1년 반 세월은 참으로 변화무쌍해서 6명의 멤버 모두 부서와 출입처가 중간에 한 번씩 바뀌었다. 나는 연합뉴스TV로 직장도 옮기게 되었다. 김용

출 선배는 정치부장으로 승진했다. 박영준 선배는 이천중 선배가 있는 세종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실록 멤버 2명은 논픽션 모임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갔다. 모임을 마치고 KTX 막차를 타는 강행군을 거쳤다.

국회를 출입하던 나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해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해 왔다.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자료를 읽을 시간이 없어서 늘 복사실에서 복사하는 게 일과 중 하나였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료를 읽으려 했지만 몇 장 못읽고 조는 일도 많았다. 청와대 출입할 때는 일이 너무 많아 원고 작업에 한동안 손을 못 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용출 선배가 주말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며 낙오되지 않게 체크하셨다.

조병욱 선배는 영국에서 귀국 전까

'실록'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출 기자의 책상. 각종 논문 더미와 일본어 원서, 서적들로 수북하다. 책을 쓰면서 일본어 자료를 다룰 때가 많았는데 도쿄특파원 출신인 김 기자의 활약이 눈부셨다. 꼼꼼한 출처 작업과 전체 원고를 이끄는 모습에 모두들 경탄했다. <세계일보 김용출 기자>



지 시차를 무릅쓰고 화상통화, 보이스톡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석했다. 특정 기사가 몇 면에 나왔는지 알아보려고 1900년대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한두 시간씩 살피기도 했다. 이현미 선배는 실록 모임 활동 중에 육아 에세이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를 펴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읽고, 쓰고, 정리하고, 회의하고... 모두들 비슷한 일상이었다. 말은 분야마다 원고를 쓸 땐 다들 '주말 작가'로 변신했다.

### # 2018년 겨울

막판 작업에 접어들 12월엔 매주 모여 책의 초고를 돌아가며 읽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 내 읽어야 더 와닿는다"는 김용출 선배의 제안이었다.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체크해가며 읽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수반했다. 읽다가 배고프고 힘들면 "다음 장은 밥 먹고 읽으면 어떨까요?"라고 외쳤다. 통독은 예닐곱 번이나 이어졌다. 12월 23일 오후 4시 39분. 용산역 스타벅스 카페에서 마지막 읽기를 끝냈다. 마지막 아이디어 회의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수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며 끝났다.

통독이 끝은 아니었다. 출판사가 정해

지고, PDF 초안이 나오면서 무한 교정과 보정 작업이 이뤄졌다. 원고 교정은 PDF 파일보다 종이로 뽑아 보는 게 정확했다. A4 용지로 뽑으니 300장이 넘었고 무게가 매우 묵직했다. 마지막 오탈자, 잘못된 내용을 잡기 위해 인쇄소에 넘기기 직전까지 다들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 # 2019년 봄

"마치 빅뱅 직전 같았다. 알 수 없는 긴장이 한반도를 종횡으로 분주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위치한 경성부는 차분해 보이는 걸모습과 달리 곳곳에서 뜨거운 피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역사 논픽션 3·1운동>의 첫장, 책에서 묘사한 1919년 2월 28일, 식민 도시 경성의 모습이다. 2019년 2월 드디어 책으로 결실을 빚었다. 6명이 모여 책을 내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636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1919년 2월부터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하는 9월까지 3·1운동의 전체상을 세밀하게 담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기자들이 의기투합해 목표를 이뤄나간 과정을 한 줄로 정리해보고 싶다. "함께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 📖